

꾸준함이 관건...NC戰 도약 발판 삼아 KT戰 설욕

KIA 주간 전망대

‘막강’ 올러·‘철벽’ 성영탁, 험거워진 불펜 ‘반쪽마운드’ 과제 불넷·병살타 남발...득점권 집중력 부재, 상승 동력 걸림돌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중위권 경쟁 속에서 분명한 과제를 안고 있다. 선발은 버티지만, 끝을 지키지 못한다. 5연패는 끊었다. 주말 롯데 3연전에서 2승 1무, 급한 불은 껐다. 그러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긴 이르다. 반등을 이어갈 힘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프로야구 팀별 순위 (26일 기준)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KT	17	8	0	0.680	0
2	LG	16	8	0	0.667	0.5
3	SSG	15	9	0	0.625	1.5
4	삼성	12	11	1	0.522	4
5	KIA	12	12	1	0.500	4.5
6	NC	11	13	0	0.458	5.5
7	한화	10	14	0	0.417	6.5
7	두산	10	14	1	0.417	6.5
9	키움	10	15	0	0.400	7
10	롯데	7	16	1	0.304	9

27일 기준 KIA는 25경기 12승 12패 1무, 승률 0.500으로 5위다. 선두 KT와 45경기 차, 2-4위와도 격차는 크지 않다. 6위 NC와도 1경기 차. 중위권은 좁좁하다. 1-2경기 결과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일정도 녹록치 않다. KIA는 28일부터 창원 NC와 주중 3연전, 이어 주말 홈에서 KT와 맞붙는다. 올 시즌 두 팀 모두에 열세다. 주중에 최소 워닝시리즈를 만든 뒤 기세를 이어가야 한다. NC는 바로 아래 순위 팀이다. 지난해 3승 3패, 마운드는 견고했다. 특히 불펜이 안정적이었다. 주간 ERA 1점대. 이닝이 흐를 수록 단단했다. 타선도 후반 집중력이 강하다. 7-9회 타율이 3할을 넘는다. 초반 주도권 싸움이 중요하다. 선취점을 내주면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 앞선 3차례 맞대결에서 KIA는 도루 허용이 가장 많았고, 불넷도 17개를 내줬다. 배터리 운영의 세밀함이 필요하다.



‘홀런 부문 단독 1위’ 김도영(왼쪽)과 ‘철벽 마무리’로 자리매김한 성영탁. 선발은 내일-이리-올러 순이다. 이어지는 KT전은 더 무겁다. 리그 1위다. 지난해 4승 2패, 투타 균형이 가장



좋은 팀 타율 0.282로 1위, 평균자책점(3.80)은 2위다. KIA는 최근 원정에서 스윘을 당했다. 전력 차

가 그대로 드러났다. 실점은 많았고, 공격은 풀리지 않았다. 1주일 만의 재대결이다. 설욕이자 시험대다. 홈이점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주 과제는 뚜렷하다. 타선부터 답답하다. 한 주간 팀 타율(0.226)이 리그 8위. 주자는 나가지만 연결이 끊긴다. 병살타가 리그에서 가장 많다. 득점권 집중력도 아쉽다. 여기에 카스트로의 햄스트링 부상이 탈까지 겹쳤다. 중심 타선의 무게가 줄었다. 그나마 나성범이 제 몫을 했고, 김도영은 홈런 부문 단독 1위로 올라섰다. 마운드는 반쪽이다. 한 주간 선발 ERA는 3.73. 수치상으론 준수하다. 올리는 ERA 리그 1위, 다승 공동 1위다. 양현종 역시 점차 올라오고 있다. 다만 불펜이 여전히 흔들린다. ERA 5.25, 리그 8위. 경기 중·후반 불안은 남아있다. 마무리는 버티고 있다. 성영탁이 6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뒷문을 지키고 있다. 정해영도 복귀 후 중간계투로 3경기 연속 무실점, 불펜 재정비의 단초다. 결국 답은 나와있다. 타선은 이어가고, 남은 건 불펜이다. 선발이 만든 리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반등의 문은 열렸다. 어느덧 개막 한 달째다. 5월, 방향이 정해진다. /주홍철 기자

매각 진행 시페퍼스 인수협상 비공개 진행...오는 30일 구단 존속 여부 판가름

최우선 전제 조건은 “광주 연고 유지”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이 나타나면서 구단 존속 여부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AI페퍼스 구단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과 비공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은 지난 24일 광주시, 광주시체육회, AI페퍼스 구단 관계자들과 함께 AI페퍼스 홈구장인 광주 페퍼스타디움과 구단 관련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실사까지 진행된 만큼 인수 절차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구단 인수가 성사된다면 최우선 관건은 광주 연고 유지 여부다. AI페퍼스는 2021년 창단 이후 광주시와 5년간 연고지 협약을 맺고 염주종합체육관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해 왔다. 협약 종료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구단 매각과 관련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협약 만료 한달 전인 지난 12일까지 차기 계약 여부 확정해야 했지만 이미 기한을 넘긴 상태라 시간이 촉박하다. 해당 기업은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AI페퍼스 인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AI페퍼스의 존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와 광주시체육회는 인수가 성사될 경우 광주 연고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다. 5월 12일 연고지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그 이전에 최대한 완료하려고 하는데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정적으로 인수 협상 중이다. 현재 인수 검토 중인 기업

과 AI페퍼스 구단, 광주시가 함께 세부 조건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연고지 유지가 최우선 전제 조건”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조심스럽고 공식 입장을 낼 상황도 아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토착 기업들 모두 지역의 유일한 겨울 스포츠 존폐에 무관심한 가운데 외부 기업에서 선풍 관심을 보여준 만큼 동계스포츠 불모지 광주에 유일한 겨울 스포츠가 계속 남을 수 있도록 광주시, 광주시체육회, 지역 체육인 모두가 힘을 모아 아할 시점”이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이사회까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구단 존속과 광주 연고 유지를 위한 논의가 공정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중 기자



축구로 하나된 아시아...제3회 광산아시안 클럽 리그 성료

베트남광주FC 우승...프로축구 광주FC, 축구 용품 전달 ‘눈길’

사단법인 코코넛이 지난 26일 광주 보라매축구장에서 제3회 광산 아시안 클럽 리그전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의 외국인노동자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가 참가자들이 축구를 통해 교류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 (사진) 대회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네팔, 인도네시아, 한국 등 7개국에서 16개 팀, 400여 명의 외국인 선수가 참가했다. 대회 결과 우승은 베트남광주FC, 준우승은 네팔FC(네팔), 3위는 하남FC(태국)가 3위를 차지했다.

베트남광주FC 주장 리진 민(베트남)은 “오늘 덕분에 마음껏 축구경기를 할 수 있었고, 좋은 날씨 속에 함께 경기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리진 민(네팔) 역시 “매년 평등FC에서는 축구 행사를 참여해왔는데 오늘 많은 팀과 함께 즐거운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런 대회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FC프로축구단이 선수용 스타킹 300개 등 축구용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변철재 글로벌유니온 센터장은 “광주지역에 많은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 지역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체육 행사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고, 대학생 30여 명은 다양한 언어의 통역 봉사로 선수들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했다. 또한 김범기 전남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장은 전문심판을 지원해 공정하고 원활한 경기 진행에 도움을 줬다. 양구진 사단법인코코넛 대표는 “다양한 언어권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스포츠를 통해 문화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며 “가을에는 더 많은 준비와 지원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가 지난 26일 런던에서 열린 런던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세계신기록을 기록하며 골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마라톤, ‘마의 2시간 벽’ 깨졌다

케냐사웨, 1시간59분30초

마라톤 풀코스 ‘2시간의 벽’이 드디어 깨졌다. 사바스티안 사웨(케냐)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5 런던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42.195km 풀코스를 1시간 59분 30초에 완주하며 우승했다. 그는 켈빈 키프팀(케냐)이 2023년 10월 시카고 마라톤에서 세운 기존 세계기록(2시간 00분 35초)을 1분 5초 앞당기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꿈의 기록 ‘서브 2(2시간 이내)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달성한 선수가 됐다. 2위로 들어온 요미프 케체차(에티오피아) 역시 1시간 59분 41초를 기록하며 사웨에 이어 두 번째로 서브 2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3위 제이컵 키플리모(우간다)도 기존 세계 기록보다 빠른 2시간 00분 28초를 기록했다. 사웨는 초반부터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했다. 선두 그룹에서 경쟁자들과 함께 초반 5km를 14분 14초(2시간 00분 3초 페이스)에 통과했고, 하프 지점을 1시간 00분 29초에 지나며 흐름을 이어갔다. 이후 30km 지점(1시간 26분 03초)까지 빠른 페이스로 선두권 경쟁을 유지했다. 사웨와 케체차는 30km 지점에서 함께 치고 나가 양자 구도를 형성했다. 승부는 막판에 갈렸다. 사웨는 결승선을 약 1.7km 앞두고 승부수를 띄웠다. 속도를 끌어올리며 케체차를 따돌렸고, 격차를 벌리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연합뉴스

KIA, 올해에도 ‘캐치! 티니핑’과 협업

5월 가정의 달맞이 이벤트

KIA 타이거즈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SAMG엔터의 대표 콘텐츠 IP인 ‘캐치! 티니핑’과의 협업을 진행한다. 먼저 어센틱 유니폼 등 총 26종에 이르는 다양한 컬래버 상품을 출시한다. 타이거즈의 헤리티지를 녹여낸 ‘공포의 타이거즈’ 컨셉을 비롯해 프린세스 로열핑(아름핑, 뽀니핑, 사뽀핑) 및 프린스핑(샤를핑, 트롯핑, 깨골핑) 등 ‘캐치! 티니핑’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의 매력을 상품에 조화롭게 담아냈다. 선수단은 오는 5월 1일부터 광주-기아 챔피언스연 구장에서 열리는 KT와의 3연전과 5월 5일 어린이날 한화전에 ‘캐치! 티니핑’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며, 해당 기간 동안 다양한 장내 이벤트도 팬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한편 컬래버 상품은 5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티스토리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주홍철 기자

